

골판지 포장산업 안정성장 정착 계획

‘골판지포장 배추 소비의 날’ 제정, 활성화 주력



오진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제23기 정기총회에서 (주)대성판지 오진수 회장을 이사장으로 추대, ‘골판지포장산업 안정성장 정착의 해’를 맞아 골판지상자 제값받기 운동, 배추·무골판지포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주간에 “골판지포장 배추 소비의 날”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골판지포장 배추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신임 오진수 이사장에게 향후 조합 운영방침 및 계획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조합원에 끊임없이 봉사하고 골판지 포장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구 중심 조합으로서 산학 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오진수 신임 이사장은 “골판지 포장기업의 균형 발전과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포장소재 가운데 골판지는 친환경적이고 수송 편의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포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골판지 포장산업계는 골판지 포장소재의 이점에 반해 사상 유례없는 공급과잉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오진수 이사장은 “경쟁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가격 일변도의 경쟁을 품질과 납기 관리 등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수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주력사업으로 업계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조정 및 정보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조합 내 사업을 다양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그는 골판지 원지, 지합업계, 제지업계와의 협력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업계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달 제지, 지합, 골판지조합 이사장과 상근 전무이사들간의 모임을 마련,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골판지 포장기업 최고 경영자 회의 역시 상시 개최, 상생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오 이사장은 신규 시장 수요 개척의 일환으로 올해 무, 배추를 포함 농산물 골판지 포장화 사업 확대와 홍보에 지속적으로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물망 배추 포장재의 경우 1백%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골판지포장의 경우 50% 남짓을 지원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합성수지제 배추 포장재를 국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환경 정책과 배치된다”고 밝히면서 “골판지 배추 사용 확대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배추·무를 골판지로 포장할 경우 도

매시장 내 환경 개선은 물론, 물류 시스템의 합리화에도 이롭다.

조합은 1996년 배추 골판지 상자 3백만매를 전국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 해 배추·무 골판지 포장 시범 출하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고랭지 무 골판지포장을 1백% 달성했다.

특히 골판지 포장재의 습강처리 능력을 보완, 규격화 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골판지 개발을 통한 품질 기술 경쟁 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진수 이사장은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주간 동안 “골판지 소비의 날”로 제정하고 골판지 포장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청, 국제청 등에서 국가 공무원을 시작으로 전자업종, 부동산, 제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지닌 오진수 이사장. 그는 “경영하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기업 발전은 없다”는 마인드를 토대로 한결 같은 노력과 성실을 바탕으로 업계 일익을 담당해 왔다.

최근 골판지 업계에는 제지를 소유한 일관 골판지 포장기업의 골판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질서 재편 문제를 포함, 구조 조정기라는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

인화(人和)와 상생(相生)을 통해 골판지 포장 산업 공동 발전에 주력할 오진수 이사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